

군산시 이중행정 비난 공세

전북애향운동본부, 군산시 금고선정 관련 전북은행 탈락시킨데에

“전북 대표기업 확대한 군산시는 지역을 말할 자격 없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최근 군산시 금고 은행선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군산시의 이중행정 비난을 퍼부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40여 년간 시 금고를 운영해온 전북은행을 탈락시키고, 중앙의 거대 공룡 은행인 KB국민은행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군산시의 이중행정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전북발전과 운명을 같이 해온 전북은행은 지난 1989년 12월 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을 통해 출범한, 200만 도민의 꿈과 피와 눈물 어린 향토은행”이라며 “전북도민과 상공업계는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전북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행은 최근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등 자산 45조원의 JB금융지주로 탄탄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가

금고 선정에서 40여 년의 동반자인 전북은행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28만 군산시민을 배신하고 200만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후안무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애향운동본부는 “단순 숫자 논리에 매몰돼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꿈과 열망을 짓밟은 군산시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애향 도민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산시의 전북기업 확대 행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할로윈 파티’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롯데 봉사단은 25일 전주 덕진구 디오이동지역센터(장애인복지회)에 방문해 장애인 30여명과 함께 ‘할로윈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 자국민 한국방문 규제로 제 2의 마늘파동 재현 우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규제한다는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제 2의 마늘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화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일선 여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한국 관광객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이고 현지 쇼핑도 하루에 한번만 진행하는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기는 국민에게는 약 30만원(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기로 했다.
 사드 배치가 제 2의 마늘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마늘파동은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리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을 말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가보호를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굴욕을 겪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본격화할 경우 면세점을 비롯한 유통업체, 화장품, 관광업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페이퍼코리아 상업용지 분양

군산 롯데아울렛 입점 예정지와 인접해있어 많은 수요 예상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롯데아울렛 입점 예정지와 인접한 상업용지를 분양한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 24일 ‘디오선시티 1단계 조성 상업용지 8,594㎡에 대한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설명회를 갖고 투자자향서 접수 및 우선협상자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용지는 ‘롯데아울렛 군산점’ 예정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4개 블록이며, 면적은 각각 2,513㎡, 2,693㎡, 1,694㎡, 1,694㎡로 일반상업지역이다.
 이곳은 1·2층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건폐율 80%, 용적률 800%를 적용해 2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매각절차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부동산그룹 ‘세빌스 코리아’ 주관으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 입찰금액은 3.3㎡당 800만원 이상이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디오선시티 아파트들이 인기리에 분양되면서 상업용지에도 많은 분양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아울렛 입점에 따른 광역상권 형성 과 집객효과 등이 기대되면서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하림 · 농심 · 파리바게뜨 잇따라 30주년 기념이벤트

최고급 호텔 패키지, 한정판 제품 제작, 신제품 출시 등 다채로운 기획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얼룩한 라면의 대명사 농심 ‘신라면’ 및 유럽풍 베이커리 기업들의 선구자 ‘파리바게뜨’ 등 서민과 함께해온 식품 브랜드들이 올해 잇따라 30주년을 맞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1986년 당시 획기적인 시도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이들 브랜드가 어느새 서민 삶의 중견 브랜드로 우뚝 선 것.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세 브랜드 모두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의 일거이 인내한 하네스인 제품을 제작 해주거나, 30년의 노하우를 담아 신제품을 출시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가 하면 최고급 호텔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봉 큰 경품도 눈길을 끈다.

하림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평소 가족을 챙기느라 마음 편히 자신을 보살필 시간이 부족한 주부 고객들에게 최고급 호텔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물하는 ‘여왕의 휴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방법은 11월 13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이나 이마트몰에서 하림의 ‘여왕의 휴일’ 이벤트 스티커가 부착된 자연실록과 홈에이드 제품을 구매할 후 받은 영수증의 이벤트 응모번호를 이마트몰(<http://emart.ssg.com>) 내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1등 당첨자 총 30명(15쌍)에게는 특급 호텔 숙박(1박 2일)과 하림 닭고기로 풍성하게 차린 특별한 저녁 만찬, 야외 아이스링크 입장권과 점심 스파 프로그램 등 완벽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심, 신라면 출시 30주년 기념 **‘나만의 신라면’ 이벤트**
 농심은 신라면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고객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나만의 신라면’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10월 한달 간 ‘30년 고객 사랑, 감동의 맛을 약속합니다!’를 테마로 신제품 30여 종을 출시한다.
 파리바게뜨는 30년간 축적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탈곡한 파이 안에 크림치즈가 듬뿍 들어간 ‘크림치즈 롤파이’ △천연효모로 만든 쫄깃한 반죽에 꽃맛살로 속을 채운 ‘꽃맛살 고로케 △부드러운 쉬폰케이크 속에 달콤상큼한 딸기가 가득 들어가는 ‘스트로베리 서프라이즈’ 등 신제품을 30여 종을 선보인다. /익산=장왕일 기자

뚜레쥬르, ‘그랑 드 카페’ 원두 리뉴얼 및 신메뉴 2종 선보

뚜레쥬르가 판매중인 커피 원두 배합을 바꾸면서 새로운 종류의 커피 2가지도 추가로 내놓는다.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가을 시즌을 맞아 커피 ‘그랑 드 카페’의 원두를

리뉴얼하고 색다른 커피 2종을 추가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그랑 드 카페’는 커피 본연의 향과 맛을 살려 빵과 잘 어울리는 뚜레쥬르만의 커피를 부르는 이름이다. 뚜레

쥬르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그랑 드 카페’ 원두 배합비를 조정하고 맛을 더욱 깔끔하고 깊게 끌어올렸다. 새로 바뀐 원두는 은은한 산미와 초콜릿 향을 더해 진하면서도 텁텁하지 않아 깔끔한 뒷맛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대형마트, 20~30대 소비 줄고 50대 늘어

젊은층 가성비 중심 소비행태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20~30대 젊은층들이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2016 유통업체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31~40세 고객층이 차지하는 구매액 비중은 2014년 27.6%에서 지난해 25.3%로 2.3%p 감소했다. 또한 21~30세 고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0%에서 지난해 5.2%로 1.8%p가 줄었다. 특히 30대 소비층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40대에 이어 유통업체에서 가장 큰 소비 세력을 형성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및 가치관 변화로 취업과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싱글 가구가 늘면서 근거리 쇼핑 선호와 철저히

가성비 중심의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대형마트 매출에서 50대 이상 소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2.8%에서 지난해 35.5%로 2.7%p 증가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에도 문화·경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경기침체로 전체적인 소비 규모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채널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창립 37주년 기념

롯데주류, 와인 2종 출시

롯데주류가 롯데백화점 창립 37주년을 맞아 롯데백화점과 함께 공동 기획한 기념 와인 2종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념 와인 2종은 그랑크뤼(Grand Cru) 1등급 와인 샤프 라피트 로질드로, 유명한 세계적인 와인러 ‘라피트 로질드’와 함께 개발한 것이다. 프랑스산 샤프 베이르 르비드와 아르헨티나산 아루마 등으로 구성됐다.
 ‘샤프 베이르 르비드’는 프랑스 보르도의 오메독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으로, 메를로(70%)와 카베네 소비뇽(30%) 품종을 블렌딩한 것이 특징이다. 각 품종의 장점을 극대화해 잘 짜인 탄닌과 적당한 산도가 높은 균형감을 자랑한다.
 또한 지두, 체리 류의 풍미와 비닐라 카라멜 등의 향이 어우러져 향신료가 가미된 요리, 숙성된 치즈 등과 잘 어울린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